

## 장흥서도 새꼬막 양식… 어민들 신났다

종묘 생산 성공… 피조개·키조개 등 양식 다각화

kg당 2,500원~3000원 '금 꼬막'…새 소득원 부상

그동안 침체됐던 장흥 연안지역의 패류양식업계가 활기를 찾고 있다. 대부분 피조개와 키조개양식에 의존해온 장흥 양식어민들이 몇년 전부터 가격이 비싸 '금 꼬막'으로 불리는 새꼬막 종묘의 대량 생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장흥수산사무소와 흥일영어법인(대표 장영복)은 지난 2006년부터 연안면 수문과 사촌, 관산 죽청지선 연안에서 새꼬막 종묘생산에 착수했다.

2년여 시험양식 끝에 그동안 새꼬막 주산단지로 알려진 순천만지역보다 생산량과 성장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돼 올해부터 대량으

로 종묘를 생산해 양식에 착수했다. 수산사무소와 흥일수산에 따르면 지난 7~8월 새꼬막 체묘용 그물을 설치한 결과 순천만 보다 개체 수가 많고 성장 상태도 월등해 장흥 연안이 새꼬막 양식의 최적지로 확인됐다.

장흥 연안지역은 패류양식이 본격화된 지난 70년대 말 이후 피조개양식에 의존해 오다 생존율이 2%에 불과할 정도로 작황이 부진해 90년대 이후 키조개 이식양식에 의존해 왔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 등으로 장흥 연안지역 일대 양식업계가 오랫동안 침체돼 왔다.



장흥 영어법인 대표(사진 오른쪽)와 박형운 장흥수산사무소장이 새꼬막 체묘용 그물을 들어 올리고 있다.

새꼬막은 과거에는 가격이 저렴했으나 최근 5~6년 전부터 종묘 생산 부진으로 kg당 2천500원에서 3천원까지 폭등해 고소득 패류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장흥 연안지역의 패류양식 어장은 피조개가 39건 448㏊, 키조개는 20건 200㏊, 새꼬막 14건 171㏊로 집계됐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세계 무도인들 남도서 '호신술 대결'

25일부터 전남도청·장흥서… 500여명 참석

전 세계 22개국 무도인 5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쇠씨름 겨루는 '세계 무도페스티벌'이 오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남도청과 장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세계무도페스티벌은 매년 세계 각국에서 태권도, 학기도, 겹도를 연마하는 무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고 주최 국가의 문화도 탐방하는 무도인 축제행사다.

1997년 영국에서 결성된 '세계태권

무도 아카데미'에서 개최하고 있는 이 행사는 2002년 세계무도 아카데미로 이름과 조직을 바꿔 해마다 '무도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는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전남도가 세계 무도인들을 초청해 열리게 됐다.

무도페스티벌의 본 행사는 11월 1일 전남도청 김대중홀에서 막이 오른다.

22개국 30개팀의 무도인들이 무대에 올라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시범과 포먼스에 이어 2일에는 장흥 실내체육관에서 품새, 호신술, 격파 등 3종목에 걸쳐 세계무도 아카데미 컵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 시전행사로는 세계 각국의 무도인 150명과 국내 350명의 무도인들이 국기원과 서울 인사동, 완도 충무사, 장보고 기념관, 보성 녹차밭, 담양 소재원, 영암 도기문화센터 등을 둘러보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산구 동네방네 풍물단 '모듬북'

### 전국 우수동아리 발표회 우수상

광산구 임곡동 '신명나는 동네방네 풍물단'(모듬북)이 지난 9~11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열린 전국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발표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

이번 발표회에는 전국 시·도대표로 선정된 15개팀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모듬북'은 임곡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하나로 15명의 주부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광산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올해 제 2회 어등축제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광산구는 매년 발표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



로그램과 각각의 주민이 참여하는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다. 또 앞으로 주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 개발·지원은 물론 전국 최고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e@

## 함평천지 한우

### 명품 한우 됐다

#### 전국 평가회 최우수

함평의 명품 한우 브랜드인 '함평천지 한우'가 전국 최우수 한우로 뽑혔다.

'함평천지 한우'는 최근 (사)한우종 축개 랑협회와 (사)전국 한우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 11회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는 한우의 등록, 심사, 경점사업 등 한우 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을 위해 열리는 국내 최고의 권위 있는 대회로 전국적으로 이를 있는 한우 브랜드 141 농가에서 282두의 거세우상을 출품했다.

임희구(함평축협 조합장) 함평천지 한우브랜드사업단장은 "함평군과 사업단이 국내 최고의 고급육 명품한우 육성을 위해 한우산업 특구지정 등 한우산업 발전에 노력해온 결실"이라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 영광 법성항 매립지先 분양

郡, 내년 1월 14일까지 선착순 수의 계약

국내 최대 굴비타운 등 다기능 어항 개발

영광군이 법성면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를 선 분양한다.

영광군은 지난 2003년 착공해 2009년 6월 준공 예정인 법성항 매립지를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3개월간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양한다.

영광군은 법성항 매립지내 어항시설 및 수산물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만4천490㎡(115필지) ▲준공업지역 1만1천126㎡(20필지)이다.

법성면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는 인접 흥농읍에 TKS 조선소 및 연관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고 중성미자 연구소, 솔라파크 태양광발전소 등이 유치돼 투자기회가 높은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백수 해안일주도로와 연계한 서해안시대의 새로운 관광특구로도 기대를 모이고 있다. 문의(061-350-5240, 356-5155) /영광=조익상기자 ischo@

## 강진 상설시장, 마트형 타운으로

강진을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된다.

강진을 동성리 상설시장은 국비와 지방비 등 45억원이 투입돼 내년 말까지 현대식 마트형 건물로 신축된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강진읍 상설시장은 옛 장목 형태로 비가 새고 균열로 인해 붕괴 위험이 높은데다 화재 발생 우려도 커 신축 필요성이 꾸

준히 제기됐었다.

강진군은 올해 용역을 의뢰하고 세부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초 5천여㎡ 규모의 새 시장 건설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신축 시장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대형 아케이드와 다양한 공연이 가능한 이벤트 광장·대형 주차장 등 편리하고 볼거리가 있는 쇼핑 환경이 조성된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 45억 투입 현대화 추진

### 대형 주차장 등 갖춰

강진군은 시장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어를 개최하는 등 차별화된 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상인들을 대상으로 시장 마케팅에 대한 지도와 친절한 시장 만들기 교육 등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나주에선 지금



### 한전 나주지점 무재해 4,300일 달성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점(지점장 조태웅)이 지난 1996년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11년 이상 산업재해가 단 한 건도 발생치 않는 '무재해 10배(4천300일)' 기록을 달성했다. 한국 산업안전공단 광주지역 본부(본부장 이관형)는 지난 7일 나주지점에서 무재해 10배 수여식을 가졌다.

이관형 산업안전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11년 이상 무재해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경영진과 전 직원이 산재예방을 목표로 합심해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안전관리활동을 전개해 무재해 현장으로서 명예를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 농촌공사 나주지사 환경정화 운동

한국농촌공사 나주지사(지사장 임유식)가 지난 8일 나주호 일원에서 내고향 물살리기를 위한 환경 정화 작업을 벌였다.

환경정화 작업에는 공사 직원과 다도면사무소 직원, 지역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가해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각종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등 2t를 수거했다. 또 저수지 행락객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환경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도 함께 펼쳤다.

임유식 농촌공사 나주지사장은 "맑은 물 지키기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매달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QUIZ**

한국농촌공사 나주지사(지사장 임유식)가 지난 8일 나주호 일원에서 내고향 물살리기를 위한 환경 정화 작업을 벌였다.

환경정화 작업에는 공사 직원과 다도면사무소 직원, 지역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가해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각종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등 2t를 수거했다. 또 저수지 행락객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환경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도 함께 펼쳤다.

임유식 농촌공사 나주지사장은 "맑은 물 지키기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매달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나주에선 지금**

한전 나주지점 무재해 4,300일 달성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점(지점장 조태웅)이 지난 1996년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11년 이상 산업재해가 단 한 건도 발생치 않는 '무재해 10배(4천300일)' 기록을 달성했다. 한국 산업안전공단 광주지역 본부(본부장 이관형)는 지난 7일 나주지점에서 무재해 10배 수여식을 가졌다.

이관형 산업안전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11년 이상 무재해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경영진과 전 직원이 산재예방을 목표로 합심해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안전관리활동을 전개해 무재해 현장으로서 명예를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남성경인팀**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점(지점장 조태웅)이 지난 1996년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11년 이상 산업재해가 단 한 건도 발생치 않는 '무재해 10배(4천300일)' 기록을 달성했다. 한국 산업안전공단 광주지역 본부(본부장 이관형)는 지난 7일 나주지점에서 무재해 10배 수여식을 가졌다.

이관형 산업안전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11년 이상 무재해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경영진과 전 직원이 산재예방을 목표로 합심해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안전관리활동을 전개해 무재해 현장으로서 명예를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